

## “시가문화권·호수생태원 수몰 우려”

### ‘광주호 독 높이기’ 31일 공청회 앞두고 정치권·시민단체 반발 확산

한국농어촌공사 4대 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지역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정당을 비롯한 시민·환경·종교단체 등이 참여한 ‘광주호 독 높이기 저지연대’(이하 저지연대)가 천막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광주시의회와 북구의회가 사업 중단 결의문을 채택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26일 저지연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은 총사업비 518억원을 들여 제방높이를 기존 25.5m에서 27.6m로 2.1m를 높이고, 505m인 독 길이를 530m로 늘리는 사업이다. 이로 인해 홍수 위는 1.1m 높아지고, 저수량은 현재 1736만8000m<sup>3</sup>에서 2325만6000m<sup>3</sup>로 588만8000m<sup>3</sup>이 더 늘어나게 된다. 또 현재는 사전방류 기능이 없는 여수토(물넘이 시설) 방식이지만, 가로 7.5m, 세로 7m 크기의 수문 4개와 취수탑(높이 27m)도 새로 설치된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시민사회·노동·농민·종교단체와 정당은 ‘광주호 독 높이기 저지연대’를 결성해 지난 21일부터 광주 북구 충효동 양버들 나무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광주시의회에 이어 26일에는 광주호가 소재한 광주 북구의회가 사업중단 결의안을 채택하고 독

높이기 반대에 동참하고 나섰다. 또한 시민 공동조사단은 오는 29일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이 진행 중인 담양군 대전면 8공구와 용산교·산동교·황룡강 합류점 등에서 교각과 보 시설물 안전 등에 대한 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등이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업타당성이 떨어지고 독을 높임에 따라 광주호 인근에 있는 가사문화권의 문화유산과 생태환경이 훼손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조오섭 광주시의회 4대강사업특위 위원장은 “광주호는 물이 부족하기

는 커녕 연간 약 1600만m<sup>3</sup>이 남고, 농업용 물 수요도 줄어들고 있어 사업타당성이 없다”며 “특히 식영정·소쇄원 등 문화유산과 호수생태원 등이 수몰될 우려가 높아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홍수조절량(588만m<sup>3</sup>) 확보 ▲재해대비 시설보강 ▲안정적 수자원 확보 등을 내세워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 초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9월께 공사를 발주한 뒤 11월 중순 공사에 착수해 2012년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

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사업계획팀 최완일 차장은 “물그릇을 키우면 수자원 이용률이 높아진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광주호, 장성호, 담양호, 나주호 등 4대호를 비롯해 총 21개소에서 농업용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개소는 착공했고 4개소는 발주중이며, 5개소는 입찰단계에 있거나 실시계획 중이다.

/송기동·최권일기자 song@



지난 21일부터 광주호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4대 강 사업 중단 광주·전남 공동행동과 광주호 독 높이기 저지연대 회원들이 26일 오후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전남 외국인 환자, 대전의 70% 불과

### 작년 1335명 유치...전국 8만1789명 1.2%, 0.4% 수준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전년보다 36%나 증가했으나 광주·전남지역에서 진료 받은 외국인 환자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 등록된 2000개소 중 1686개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총 8만 1789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의 지역별 유치 현황은 서울 61.7% (5만490명), 경기

13.3% (1만913명), 대구 5.5%, 부산 5%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1.2% (989명)를 유치해 7대 대도시 중 6위를, 전남은 0.4% (336명)로 9개 광역도 가운데 8위를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진료 환자(1325명)는 대전 (1693명)의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17개 주요 의료기관들은 지난 3월 ‘광주권 의료관광협의회’를 발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

그램과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상위에 올랐다. 주로 찾는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외과(14%)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내과(13.5%), 검진센터(13.1%), 가정의학과(9.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고된 외국인 진료에 따른 총 진료수입은 1032억원으로 전년의 547억원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호남권 파급효과 없는 기존사업, 영남권은 신규사업 위주 편성

## 형평성 잃은 ‘광역경제권’ 불균형 심화

### 지역발전위원회 광주 합동 워크숍

정부가 광역경제권 프로젝트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호남권역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예외 파급효과가 거의 없는 기존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호남권 선도산업을 다른 권역에도 일반사업으로 별도 지원하는 등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광주·전남·전북도가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호남권 시·도는 특히 인구를 기준으로 영남권은 2개, 호남권은 1개 권역으로 나눠 불균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호남권역을 1개의 광역권과 1개의 특별광역권으로 분리해줄 것을 제기했다.

광주시 등은 26일부터 1박2일간 지역발전위원회 주최로 광주에서 열리는 ‘광역경제권 합동 워크숍’에서 이

명박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내건 5+2 광역경제권이 권역 지정부터 선도프로젝트 및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 이르기까지 불합리하게 짜여 졌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권역 설정의 경우 수도권을 광역권으로 분류해 수도권 집중화와 그에 따른 지방침체가 가중되고 있고 인구 기준으로 영남권은 2개 권역을 배정한 반면 호남권은 1개 권역으로 해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또 선도프로젝트 7개 중 호남권은 전북의 신항 건설 및 군산공항 확장 등 새만금 개발만이 신규 사업인 반면 동남권과 대경권은 국토 5호선(마선~거제 연륙교) 등 5개 사업이 추

진되고 있는데다 호남은 선도 프로젝트 이외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가 신성장 거점육성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호남권선도산업인 신재생에너지·친환경부품소재산업은 다른 권역의 분야별 산업 또는 일반산업으로 중복 지원되고 있어 호남권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시도의 주장이다.

실제로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분야는 대경권 그린에너지 분야 태양광, 충청권 그린 반도체 분야 태양광 등과 중복되고 있으며, 광주시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LED산업의 경우 경북·경기·부산 등이 LED-IT 융합산업화연구센터 구축, 경기 첨단 가전 LED융합센터 조성, 부산 해양 LED융합산업화 센터 건립 등에 나서면서 정부 지원이 분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광역경제권 정책이 오히려 불균형을 재촉하고 있다”며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 발족후 첫 합동워크숍인 만큼 제1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16개 시도 및 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현석기자 chadok@kwangju.co.kr

## 국가영어능력시험 4개 영역 4등급 절대평가

고등학교 대상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이 듣기·읽기·말하기·쓰기 4개 영역에 대한 4등급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이 시험은 내년부터 일부 대학 수시모집에 시범 활용되고, 빠르게 2016학년도 수능부터 외국어(영어) 영역을 대체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서울고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및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고교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평가기준과 예시문항 등 시행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고교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성인용은 1급)는 대학공부에 필요한 기초학술영어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2급 시험과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실용영어능력

을 평가하는 3급 시험으로 구분된다. 인터넷으로 보는 시험은 읽기·듣기·말하기·쓰기 등 4개 영역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A,B,C(Pass), F(Fail) 등 4단계로 등급이 매겨진다. 시험 난이도는 수능 영어보다 조금 더 쉬운 수준이다.

말하기와 쓰기 영역은 수능과 달리 직접 영어로 말하거나 서술해 답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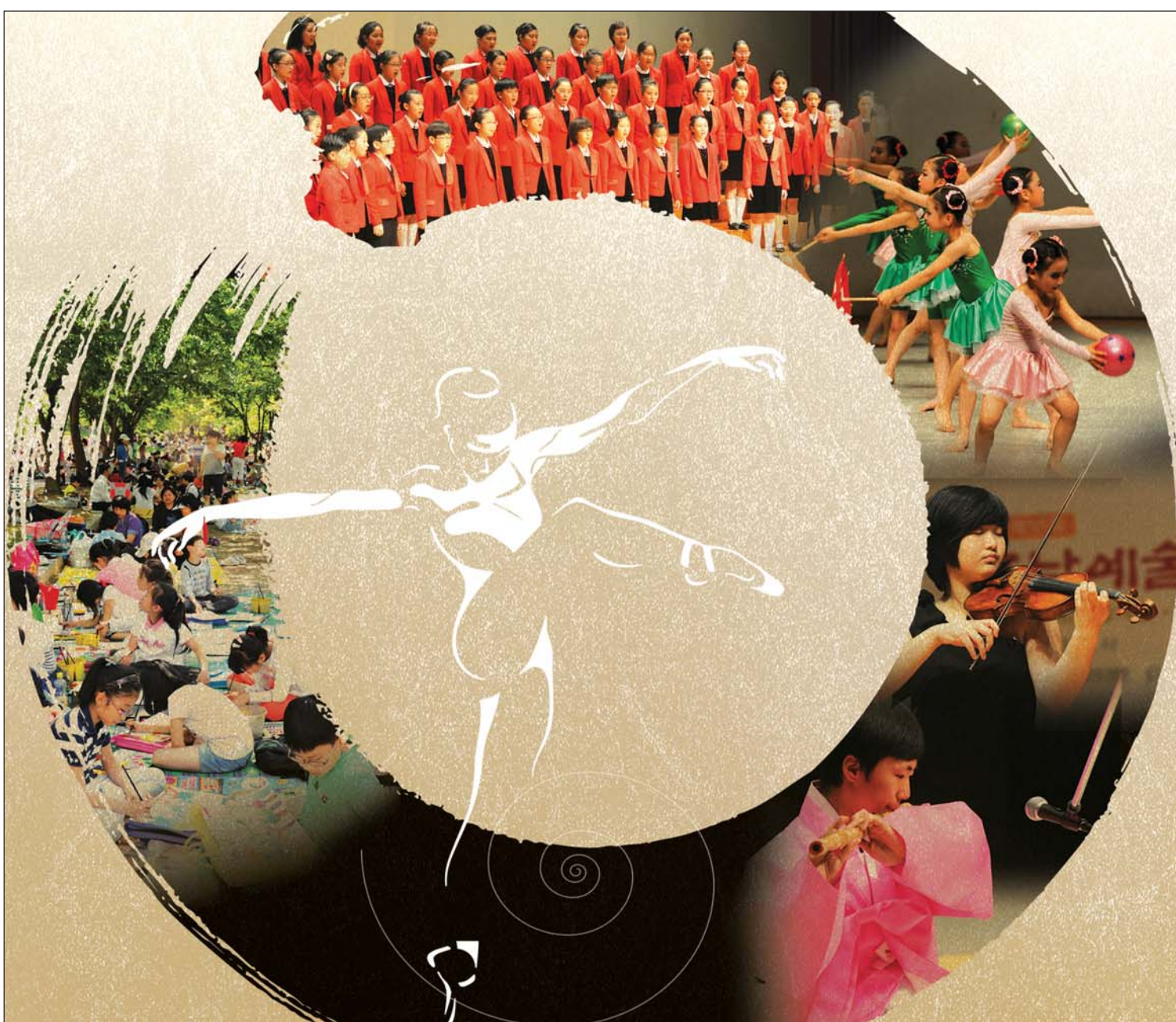
### 이르면 2016학년도부터 수능 외국어 영역 대체

하며 고3 때 두 번 응시해 좋은 성적을 택할 수 있다.

이 시험은 일부 대학 학과에서 2012년에 치르는 2013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시범적으로 활용된다. 2009년부터 3년제 시범평가가 계속된 가운데 올해도 이달 26~27일 전국 80개 고교 재학생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평가가 시행된다. /연혜스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 전국대회

2011. 4. 28(목)~6. 1(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금호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주최 | 광주일보사

협찬 | SAMSUNG 삼성생명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http://art.kjmedia.co.kr | 062. 220. 0541